"같은 민주당 이면서도 이패 저패 나눠 참배오나 단결된 모습 보여 달라"

광주서 '회초리' 맞은 민주 지도부

광주원로들, 계파갈등 등 따끔한 충고

정대표 "당 혁신기구 가동… 쇄신할 것"

광주지역 원로들이 5·18을 맞아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들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18일 오전 광주지역 원로들은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4·29 재보선 호남 전패, 전국 정당화 논란, 당내 계파갈등 등과 관련해 따끔한 충고를 했다.

박경린 전 광주YWCA 사무총장은 "수도권에서 잠깐 이겼다고 희희낙락할 게 아니라 전주·광주에서 왜 졌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당내 일각에서 전국정당화를 주창하는데 대해 "아무리 전국정당으로 가려고 해도 그 기반을 무시해선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홍길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도 "내부의 자잘한 정치경쟁에서 벗어나 민주세력의 적통을 사수하기 위한 명예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동영 의원에 대한 당의 공천배제를 에둘러 비판했다.

안성례 5·18 29주기 행사위원장은 "같은 민주당이면서 이 패, 저 패 나눠서 참배오는 것은 보기 안좋다"며 "내년에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현지 스님은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이겼다는데 정작 지지도는 멈춰 있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용산참사처럼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가니까 지지도가 안 올라간다"고 질타했고, 정철웅 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도 "대북문제가 심각한데 발언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가세했다.

이 같은 광주지역 원로들의 충고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재보선에서 회초리를 심하게 맞아 피가 철철 나지만 소중한 보약으로 생각한다"며 "재보선 결과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 책임을 나눠지면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텃밭의 민심을 수습하는 동시에 당 쇄신 의지를 이끌 당 혁신기구를 가동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2012년 재집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전위원회는 뉴민주당 플랜의 선언·정책을 짜고, 이의 실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당 혁신기구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선을 그었다.

그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는 민주당 중앙당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광주에서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의 복당 문제에 대해 "탈당한 지 1년이 지나 복당 신청이 들어오면 당 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대표로서 모든 절차를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5·18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식에서 민주당 정세균(왼쪽) 대표와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나라 원내대표 경선 '보이지 않는 손' 있나

황우여-親朴 최경환 출마 선언에 안상수·정의화 '거래설' 의혹

오는 21일 실시되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선 출마를 이미 선언한 안상수, 정의화 의원에 이어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출사표를 던진 황우여 의원이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친박(친 박근혜) 진영의 핵심멤버인 최경환 의원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온 최 의원은 친이 진영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와 이미 정의화, 안상수 의원이 오래전부터 러닝메이트로 눈독을 들이며 삼고초려 했으나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 카드는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생각돼 왔는데 경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최 의원이 갑작스럽게 황 의원의 파트너로 등장, 여의도 정가를 술렁거리게 했다. 모종의 거래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즉, 당 주류 측이 당 화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표 측과 거래를 했다는 관측이다.

때문에 '최경환 카드'와 관련, 박 전 대표의 의중이 담겨있다거나,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쪽에서 추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선 레이스에서 다소 앞서고 있다는 평을 받는 안상수 의원 측이나 지역적 기반인 부산·경남 의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의화 의원 측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득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에 관해선 내가 관여하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는다. 나는 확실한 엄정중립"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 측근도 "최 의원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출마하는 데 대해 (박 전 대표가) 개인적인 소회는 있을 수 있으나 허가를 한다든지, 개입한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를 방문한 박희태 대표도 '보이지 않는 손' 논란과 관련, "나는 '김무성 카드'가 불발된 이후 원내대표 경선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우여-최경환' 조가 경선 레이스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다른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성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지도부 '5·18 광주' 총집결

5·18 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일인 18일 여야 지도부가 광주에 총집결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5·18 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식에 정몽준·허태열·박재순 최고위원, 윤상현 대변인, 심규철 제2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박 대표를 포함해 4명의 최고위의원이 광주를 찾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송영길·박주선·장 상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전날 1박2일 일정으로 대거 광주로 내려왔다.

이들은 전날 당원·당직자 70여명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으며 이날 오전 5·18 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 대표는 광주 방문에서 "5·18 영령들의 희생 위에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주의 역행에 맞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김낙성 사무총장, 박선영 대변인 등과 함께 이날 오전 5·18 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전남도당 현판식에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전날 광주를 방문한 뒤 이날 오전 5·18 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희태 "호남 향한 마음 변치 않을 것"

한나라 광주간담회서 '호남 구애'

한나라당 지도부가 18일 5·18 추모를 위해 광주를 찾은 것을 계기로 호남 구애에 최선을 다했다.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2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식당에서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 당직자 5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한나라당이 4·29 재보선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고 전북 전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사기가 저하된 호남 지역 당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박 대표는 이날 "광주는 조국의 민주화를 확고한 반석에 올린 자랑스런 성지"라면서 "이제 더 큰 일을 하자. 지역의 벽을 허무는 성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20년 동안 호남에서 구애했고 짝사랑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금은 짝사랑에 불과하지만 언제든 사랑을 받아줄 날이 오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며 "한나라당이 잘 되려면 공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조직강화를 주문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호남인들이 지역 단절의 벽을 허무는데 선봉에 설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도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고, 전남도당 위원장 출신인 박재순 최고위원은 "우리 스스로 지역의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이날 특전사를 격려 방문, 논란이 일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남태령 경찰특공대를 방문해 대테러 대응 태세를 점검한 뒤 오후에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특전사 707 특수임무대대에 들러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금이 구조조정·개혁 추진 적기"

이대통령 라디오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이고,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지금은 긴장을 늦출 시점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당면해 있는 위기 상황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누적돼 온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하느냐 못하느냐, 미래를 위해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하강의 속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들도 나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갈 길이 아직도 한참 남아있고 냉정하고 신중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운전으로 비유하면 지금은 강풍이 다소 잦아들어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는 됐지만 여전히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 경제적 상황을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합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학원! , 無等과 만나세요!! =

7·9級 공무원 全직렬

30 40 늦깍이 주부반모집 살학지

형교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목소기 정행무세사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합격 후 6년간 소방인력 8395명을 충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시험일 : 국9급, 매년 4월 / 7급, 7월 시행 지9급, 매년 5월 / 7급, 9월 시행 ※서울, 매년7,9급7월시행
• 채용인원 : 7,9급국가직3~ 4천명, 지방직4~ 5천명
대한민국 공시합격의 선구자!!

개강 6월 1일 (주·야 간책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사법, 민사법, 헌법, 경제학 교정학, 복지학, 소방학·법, 공중보건학, 상식, 기타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최선을 다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

◦부대시설◦
• 정학실300여석! • 구내식당
• 인터넷정보실! • 자하주차장!
• 맞춤식 학원을 최신시설!
• 매월말 토요일 정학 모의고사 실시!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개강 5월 1일(첫 진도 첫 페이지)

경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교재 15% D/C

1년과정
•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교재 15% D/C

주저하지말고 1년 수강료 96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합격배출 1위 교수진

경찰학 오 탄
• 신 경향 경찰학 개론 직강
• 남부 검찰학원 전임
•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수사 차주윤
• 강의경력 22년
• 광주 순천 메인 전임
•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영어 이방희
• 경찰 영어 70% 합격좌우
• 꼭꼭 짚어 쉽게 강의
• 강의경력 15년

형법 허문표
• FIRST최강 형법 직강
• 노량진 한국경찰 전임
• 광주 메가 학원 전임

형소법 김현중
• 사시 1차 3회 합격
• 신림동 법원 경찰수강대상 1여년 강의
• 형소법출제경향이 확 바뀌고있다.

경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226-5050

EVENT

5월 부모님께 전하는 감사의 마음

돈보다 비데

행사기간 : 2009년 05월 10일 ~ 05월 31일

부모님 선물은 현금이 최고다!
단, 노비타 비데를 만나기 전까지는...
생각이 다른 비데 전문가들이 전하는 실속 있는 효도 선물,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D-KA150
~~270,000원~~
159,000 45%

※ 상기 가격은 설치비 미포함

모든 구매고객에게 1년치 필터(2ea) 증정

노비타 비데 호남총판
(주)비데프라자
062) 515-1144